

# 山东大学

## 二〇一四年招收攻读硕士学位研究生入学考试试题

科目代码 643

科目名称 综合韩国语

(答案必须写在答卷纸上, 写在试题上无效)

一. 다음은 한국어 관련 지식 문제입니다. ( )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십시오. (괄호당 3 점, 총 45 점)

1. 한국어 품사 용언에는 ( )와 ( )가 있다.
2. 한반도(조선반도) 방언 구획은 평안도/서북방언, ( ), 중부방언, 전라도/서남방언, ( ), ( ) 등으로 나눌 수 있다.
3. 단어는 그 문법적 기능에 따라 ( ), ( ), ( ), 관계언, 독립언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.
4. 한국어 자음 중 마찰음으로는 ( )과 ( )이다.
5. 한국어 어휘는 그 어원에 따라 고유어, ( ), ( )로 나뉜다.
6. 한국어의 품사에는 명사, ( ), 수사, 동사, 형용사, ( ), ( ), 부사, 감탄사 등 9 가지가 있다.

二. 단일어와 합성어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. (총 15 점)

三.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. (소문제당 2 점, 총 20 점)

1.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기분이 좀 ( ).
2. 손가락은 물론이고 손톱, 이쑤시개 같은 전기가 통하지 않은 물체로도 최신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작동이 ( ).
3. 기한 내에 과제를 내느라고 ( ).
4. 오늘은 지하철을 탔기에 망정이지 지각할 ( ).
5.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( ) 무고한 단 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.
6. 자네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( ).
7. 오죽하면 그런 소문까지 ( ).

8. 누구나 어디를 가든지 평소 몸에 ( ) 습관이 저절로 표출될 수 밖에 없다.
9. 월급이 많은 반면에 일이 ( ).
10. 누구든지 자신의 직업이 꼭 적성에 맞는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( ).

四. <보기>에서 알맞은 속담을 찾아 빈칸을 채우세요.(소문제당 3 점, 총 15 점)

- 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.
- ② 뛰어야 부처님 손바닥이다.
- ③ 마파람에 계눈 감추듯 하다.
- ④ 목구멍이 포도청
- 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.

1. 엄마 1: 아이에게 운동을 시키세요?  
엄마 2: 주중에는 학교에다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못 시켜요. 주말에 태권도를 배우라고 체육관에 보내요.  
엄마 1: 우리 아이는 운동을 하기 싫어해서 걱정이에요.  
엄마 2: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게 하세요. 아이가 운동을 하고 나면 식욕이 좋아져서, 편식하지 않고 제가 해 주는 음식을 ( ) 먹어요.  
엄마 1: 아이가 잘 안 먹어 걱정인데, 꼭 운동을 시켜야겠네요.
2. 친구 1: 나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이번에 장관이 되었다.  
친구 2: 장관이 되기 전에는 뭘 했는데?  
친구 1: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국회의원을 할 때 보좌관을 했어.  
친구 2: 장관에 임명이 된 것을 보면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.  
친구 1: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친구였어.  
친구 2: 그래 친한 친구가 장관이 되었으니, 자네한테도 한자리 마련해 주겠네?  
친구 1: 그 친구는 자기 관리에 엄격한 사람이라, 나에게 그런 엉뚱한 일을 하라고 생각하지 않아. 전혀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어.  
친구 2: 그래 맞아. ( ) 다가는 팬히 마음만 아플 수가 있지.
3. 엄마: 너 오늘 학교에 갔다와서 숙제 다 하고 놀았니?  
아이: 예, 숙제 다 했어요.  
엄마: 정말로? 놀기만 한 거지? 숙제는 안 하고?  
아이: 숙제 다 했다니까요!

엄마: 거짓말하지 마라. 네 얼굴에 숙제 안 했다고 써 있는데. 거짓말하면 영녕이에 뿐 난다.

아이: 정말로 얼굴에 써 있어요, 숙제 안 했다고?

엄마: 그래. 엄마는 네 얼굴만 보면 다 알아.

아이: 숙제 아직 안 했어요. 지금 할게요

4. 혜림: 인수야, 너 대학 졸업반이 되니까 무척 열심히 공부한다.

인수: 그래. 요즘 영어 공부도 무척 열심히 하고 있다. 졸업하면 바로 취직을 하고 싶어서 그래. 대학 졸업하고 백수로 지낼 수는 없잖아.

혜림: 지금 대학생들은 다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데, 취직이 안 되잖아.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걱정이다.

인수: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돼. (\_\_\_\_\_)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노력을 해야 해.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미리 준비를 열심히 해야 취직을 할 수 있어.

5. 지하 상가에서도 납이 검출되고, 미세먼지의 오염이 높은 수준인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. 이는 지하상가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는 상인과 수많은 이용객들이 끔찍한 오염에 노출됐음을 의미한다. 서울의 한 지하철 역의 지하 상가에서 8년간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신모(35.여) 씨는 “환기시설이 엉망이어서 먼지 구덩이에서 살다 보니 일년 내내 만성 기관지염에 시달리고 있다”고 불평했다. 신 씨는 또 “(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이라 어쩔 수 없이 지하 상가에서 일을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폐암이라도 걸릴 것 같다”고 한숨지었다.

五.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십시오. (총 15 점)

二十年弹指一挥间，中韩关系正站在新的历史起点上。两国新一届领导人以互致贺电、互派特使和互通电话等形式沟通交流，展示了双方重视中韩关系，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向更高水平发展的真诚意愿。朴槿惠总统懂中文、喜欢中国文化和哲学，令中国人民多了一份亲近感。

六. 다음의 글을 읽고 느낌글(读后感)을 900자 정도 쓰세요. (총 40점)

#### 중국 ‘빈부격차 워킹’ 논란 뜨거워

20% 부유층이 소득 절반...하위 20%는 4.7%에 그쳐

“필연적 현상” “제도 미비” “정책 문제” 등 진단 엇갈려  
    중국에서 빈부격차의 심화 원인을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.

유엔개발계획(UNDP)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.45에 이르렀으며, 인구 20%를 차지하는 극빈층의 수입과 소비는 전체의 4.7%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인구 20%의 최고 부유층은 수입과 소비의 50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“빈부격차는 이미 합리적인 한도를 넘어섰다”고 〈중국경제시보〉가 16일 보도했다.

중국에서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△경제발전의 필연적 결과라는 합리론 △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현실적 진단 △체제의 문제에서 파생한 것이라는 근본적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.

<선전특구보>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“경제와 사회의 진보에 따라 빈부 격차는 필연적”이라고 전제한 뒤 “수입격차 확대는 고급 인력에 대한 우대의 결과로 이는 경제성장 가속화의 추동력”이라고 주장했다.

반면 <남방일보>는 지난 11 일 “중국에 누진세 등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세제도가 미비해 빈부격차 확대를 막지 못하고 있다”고 논평했다.

<중국경제시보>는 16 일 좀더 근본적으로 “중국의 개혁노선이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나타난 게 아니라, ‘효율을 우선시하고 공평도 돌아본다’는 발전사상을 채택했기 때문에 빈부격차 확대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 이 신문은 “중국에서 최근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국유재산의 ‘시장가치’를 ‘발견’한 뒤 이를 싸게 사들인 뒤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 중국경제의 거품 현상을 부추기고 빈부격차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다”고 비판했다. 이 신문은 또 “국유자산 사용의 공공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빈부 격차 문제는 해소하기 어려울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